

진도군, '군민의 날' 맞아 문화, 공연, 체육 행사 잇따라 개최

송가인, 마이진, 최진희, 울랄라세션 공연... 보배섬 국화축제, 굿나잇 야행, 체육 행사 등 다채롭게 열려

진도군은 오는 10월 31일(금)부터 11월 2일(일)까지 총 3일 동안 '제50회 진도군민의 날' 행사와 '보배섬 문화예술제 축하의 밤' 공연을 연계해 한층 더 풍성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10월 31일(금) 전야제 '보배섬 문화예술제 축하의 밤'

전야제인 '보배섬 문화예술제 축하의 밤' 공연은 10월 31일(금) 오후 7시, 향토문화회관 주무대에서 진행되며, ▲송가인 ▲마이진 ▲울랄라세션 ▲최진희 등 초대 가수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진다.

◆11월 1일(토) '제50회 진도군민의 날' 기념식

본행사인 '제50회 진도군민의 날' 기념식은 11월 1일(토) 오전 9시 30분에 진도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며, 7개 읍면이 준비한 입장식, '진도군민속예술단'과 '월드무먼스'의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군민의 상' 시상, 분야별 유공자에 대한 진도군수 표창, 기념사와 축사, 300명이 선보이는 대규모 강강술래 축하공연, 읍면 대항 화합행사 등이 진행된다.

◆11월 1일(토) ~ 11월 2일(일)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기념식 이후에는 진도공설운동장과 종목별 경기장에서 '진도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11월 2일(일)까지 진행되며, 육상, 축구, 배구, 씨름, 줄다리기 등 16개 종목의 열띤 경기가 펼쳐진다.

또한, 행사장에는 어린이 체험 공간, 기념 촬영장(포토존), 지역특산물과 건강증진 홍보관, 고향사랑기부회와 인재육성장학금 홍보관이 운영되며, 군민의 날 50주년을 기념하는 '한 줄 축하 메시지'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올해는 군민의 날 5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 군민 모두가 화합해 진도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군민의 참여와 성원으로 진도의 위상을 더욱 높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0월 27일(월) '2025 보배섬 국화축제' 개막식·10월 30일(목) '2025 진도 굿나잇 야행'

한편, 진도개테마파크에서는 10월 27

일(월)부터 개막하는 '2025 보배섬 국화축제'가 개최되며, 10월 30일(목)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진도읍 철마공원과 주요 거리에서 행진(퍼레이드)과 참여형 거리춤(플래시몹)을 결합한 '2025 진도 굿나잇 야행'이 진행된다.

◆진도군, '보배섬 국화축제' 10월 27일 개막

진도군은 '2025 보배섬 국화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오는 10월 27일(월) 오후 5시, 진도개테마파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배섬 국화축제의 주제는 '꽃빛 활짝! 별빛 반짝! 진도에서 만나게'이며, 진도개테마파크를 중심으로 군청, 철마공원, 향토문화회관이 형형색색의 국화로 꾸며진다.

이번 축제는 총 15만 본의 국화로 만든 국화작품이 전시되며, 특히 '희망을 찾아 떠나는 보배섬 진도 바다 여행'을 주제로 연출한 특별 전시 공간은 진도의 자연과 국화가 어우러진 색다른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 조명으로 밤에도 관람할 수



있는 화려한 국화정원을 조성해 방문객에게 국화 향기와 빛이 어우러진 가을밤의 낭만을 선사할 예정이다.

진도군은 국화축제를 '지역 농가와 함께하는 상생형 축제'로 추진했는데, 37개 위탁 농가가 직접 재배한 국화로 축제를 준비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진도/오재명 기자



완도군, 올가을 힐링은 약산 해안 치유의 숲에서!

해오름길 등 4개 구간 숲길 걸으며 치유, 해마다 방문객 늘어

전국 최초로 산림과 해양이 어우러진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은 산림·해양 치유, 교육 등 다양한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22년 총 60억 원을 투입해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산 123-2번지 일원에 조성됐다.

2023년에는 10,986명, 지난해에는 11,791명으로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객 만족도는 100%, 많은 이들이 재방문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산 해안 치유의 숲에는 너울골길(673m), 숲내음길(850m), 동백향길(540m), 해오름길(1,500m) 등 총 4개 구간의 숲길을 조성해 산림치유를 하기에 최적이다.

특히 동백나무와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난대 수종의 군락지로 형

성돼 피톤치드 발생량이 많고, 구간별 테마 숲길을 따라 펼쳐진 바다 등 탁 트인 풍광을 보고 걸으면 절로 치유가 되는 곳이다. 아울러 체조, 명상, 족욕과 아로마 목걸이·향균 스프레이 만들기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군은 숲속에서 산림·해양 치유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해수온열 치유실을 정비·보강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닌 심신을 치유하는 공간이다"면서 "올가을 자연 속에서 진정한 힐링을 찾고자 한다면 완도로 오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약산 해안 치유의 숲 프로그램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완도군청 산림휴양과(061-550-5509, 5157)로 하면 된다.

완도/장선우 기자

강진군이 제10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기간 강진 상가 활력을 위해 오는 25일, 26일, 10월 31일, 11월 1일 4일간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진읍 서문마을 회관 정각 앞에서 강진 상권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상가 방문객 및 소비 촉진을 유도해 진흥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되며, 주요 이벤트로는 강진사랑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강진 서성다정길 골목상권 이벤트, 강

갈대축제와 함께 즐기는 강진 상권활성화 이벤트

강진에서 소비한 카드영수증 들고 오면 상품권+경품 쏟아진다

진 서성다정길 골목상권 이벤트, '강진맛 깨비' 딱깨비 할인 이벤트, SNS 내돈내산 특별 이벤트 등이 있다.

영수증 페이백 이벤트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기간(10월25~11월2일) 중 강진군 관내 상가에서 소비된 5만 원 이상 카

드영수증 제출 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받는 이벤트로 행사 기간 4일간 1일 1회 참여가 가능하며, 경품은 강진사랑상품권 1만 원부터 최대 3만 원이 준비돼 있다.

경품으로 1만 원 상품권이 당첨된 경우, 추가 게임 추첨 후 강진 상가에서 구입한

물품 등 경품을 지급한다.

기간 중 10월 25일과 10월 26일 2일간 오후 4~오후 7시에는 '누구나 노래자랑'을 주제로 한 강진 서성다정길 골목상권 이벤트가 진행된다. 노래자랑 참여자는 '강진 서성다정길 상가 이용쿠폰'이 지급되며, 노래자랑 사전접수는 서성다정길 상인회장, 서문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상시 접수 가능하다. 강진/손경설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진행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만기자 21명에게 22일부터 만기 지원금 총 1억7,020만 원을 지급한다.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기반을 돕는 제도.

15~39세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10~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만기 시 원금에 이자 등

영암군,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지원금 지급 나서

을 포함해 360~1,080만원의 지원금을 더해주는 내용이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어 사업에 참여한 21명의 영암 청년들은 3년 동안 총 1억3,900만 원을 적립했다.

영암군의 이번 만기 지원금 지급으로 1인당 최소 적립금의 두 배 이상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됐다. 영암군은 이 청년들에게 온라인 '복지로'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만기 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해 갈 것을 당부했다.

만기 지급금 신청에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 해지 신청서와 자금사용계획서가 필요하다.

하해성 영암군 주민복지과장은 "3년간 일하며 저축한 청년들의 노력이 자산 형성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포함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I, II 등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총 106명이 참여하고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농업인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후 시범운영을 마치고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설치로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는

영광군,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확대

민원인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영광군은 군청과 읍면사무소, 은행, 병원 등 18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며,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최대 123종(기관별 상이)의 민원서류를 민원창구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촌 지역 특성상 농업인의 출입이 잦은 기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해 민원서류 발급 편의성을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곡성군, 제25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 최종 현장 보고회

곡성심청강기차마을 축제장 공간 배치 등 현장 점검

곡성군은 지난 22일 '제25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 주무대인 곡성심청강기차마을 현장에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상래 군수가 주재한 이번 보고회는 김중서 문화체육과장의 총괄 보고 후 축제장 공간 배치 점검과 함께 축제 프로그램 담당 부서장의 보고로 진행됐다.

군은 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장 경관 조성 및 제작 작업,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 등 행사장 정비 전반에 힘써왔다.

축제장에는 군, 경찰, 소방, 대행사, 의료반으로 구성된 현장종합상황실이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캐치 티니핑, 헬로카봇 등 주요 공연이 펼쳐지는 중앙무대는 민간안전운영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및 긴급상황에 대처하고 특히 중앙광장은 구급차가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비상통로를 확보했다.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는 구급차가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비상통로를 확보했다.

먹거리존이 구성된 장미공원 인근에는 관광객들이 쉬 수 있도록 200석 규모의 쉼터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기존 운영 쉼터에 더해 요슬랜드 앞 곡성다움 인근에도 쉼터를 추가로 조성하고 유모차 및 휠체어 대여소와 모유 수유방을 운영하며, 축제장 곳곳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등 축제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가 10월의 어린이날을 표방한 만큼 아이들이 축제를 온전히 즐기고, 평생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기차마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축제 준비와 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곡성/이경수 기자

